

대학생의 자기애, 우울과 정신병질 성향과의 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김 영 윤 이 은 진[†] 김 범 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들의 자기애 성향이 우울이나 정신병질 성향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자기애, 우울, 정신병질의 각 변인들을 남녀 별로 비교하고, 부적응적 자기애 수준에 따라서 우울, 정신병질과 외현적 자기애 성향이 달라지는지 살펴봄으로써 부적응적 자기애가 다양한 변인들과 가지는 관계를 알아보았다. 자기애와 정신병질 측정을 위한 다양한 척도를 사용하여, 동일변인을 측정하는 두 척도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의 대학생 여자 502명과 남자 501명(총 1003명)을 대상으로 자기애 성격 척도인 NPI와 NPDS, 우울척도인 BDI과 정신병질 척도인 PPI-R과 SRPS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척도별 평균비교에서 대학생들은 외현적 자기애(NPI), 우울(BDI)과 정신병질 척도인 PPI-R에서 남녀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부적응적 자기애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우울, 정신병질 성향과 외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성차와 자기애 수준과 연관 지어 논의하고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요어 : 부적응적 자기애, 외현적 자기애, 우울, 정신병질, 성차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8-321-H00007).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은진,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443-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Tel: 031-249-9197, Email: lej1130@hotmail.com

아침에 신문을 보는 것이 두려워지거나 가족과 TV의 뉴스를 함께 시청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범죄의 발생이 빈번하고 그 내용 또한 흉포화 되어간다. 이러한 성인 범죄에 대한 통계나 심각성이 거론될 때, 범죄자의 교정 방법이나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함께 제기된다. 이러한 논란의 이면에는 소년범들의 재범률 상승이라든지 범죄를 시작하는 연령이 낮아지는 것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경찰청, 2010; 이수정, 이혜선, 2006). 청소년 비행을 비롯한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환경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병리현상이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개인이 지닌 내재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탐색되어 왔다.

개인에게 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심리적인 변인들은 시대에 따라 혹은 그 개념에 따라 부적응적이거나 적응적일 수 있는 것으로 구분되어져 왔다. 그리고 변인에 따라 그 내재적인 특성의 강도가 부적응과 적응을 가르는 지표가 되기도 하였다. 임상적인 심리검사의 하위척도들의 점수에 대한 평가도 표준점수로 변환하여 점수의 고저에 따라 병리적인가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개인이 적응적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은 대인관계 영역에서의 기능 손상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관계하지 않고 살아가는 개인을 생각할 수 없는 현대사회에서 대인관계 능력이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실제 상담이나 임상 현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져 왔다. 대인관계 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해 공감이나 자기표현 기술을 훈련시키거나 다양한 코칭 기술들이 개발되어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대인관계 기술을 증진시키는데 장애가 되는 특성 중에 하나로 자기애적 성향이

지적되어 왔으며(윤성민, 신희천, 2007; Hendin & Cheek, 1997), 우리사회에도 공주병, 왕자병이라는 용어로 소통되어져 왔다. 성격적 특성의 형성에는 사회적인 환경이 많은 영향을 미쳐왔으며 신체적인 성이나 사회적으로 개념화되어지는 성인 젠더의 영향이 간과되어질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주의적인 삶의 형태가 사회 각 영역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수용되어지면서 현대인에게 더욱 부각되어지는 성격 특성인 자기애가 우울이나 정신병질과 같은 부적응적인 심리적 특성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성차를 고려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자기애적 성격특성과 관련지어 일부 연구들은 남녀 간의 차이를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왔으며(강선희, 정남운, 2002; 백승혜, 현명호, 2008), 주로 자기애적 성격특성이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 요인들과 가지는 관계를 탐색하거나 매개요인들을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권희영, 홍혜영, 2010; 서수균, 권선만, 2002; 윤성민, 신희천, 2007; 한수정, 권석만, 2010). 성차를 분석하여 보고한 연구들에서도 자기애 척도 전체 점수의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으며(길주현, 오경자, 2008; 김민주, 2007; 장유진, 2007), 하위요인 별로 일부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기애가 다양한 요인들로 구성되었거나 발현양상에 따라 구분되는 특성을 지녔을 수 있다는 추론을 하게 하였다. 특히 자기애 척도들 간의 상관이나 요인분석 연구들(Hendin & Cheek, 1997; Mullins & Kopelman, 1988)에서 기존 척도들 간에 상관이 약하며, 요인분석 결과 두 개의 요인이 도출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후에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의 구

분을 제안하는데 근거가 되는 연구가 되었다.

자기애적 성향자는 냉담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거만한 태도와 특권의식에서 비롯되는 타인에 대한 착취적 행위를 함으로써 소통하는 대인관계를 가지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Kernberg (1975)는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피상적으로는 적응적인 행동을 보일지도 모르지만 내적인 세계는 병리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연구자들은 자기애적 성향자들이 적대감과 분노를 많이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였다(Hart & Joubert, 1996; Robbins & Dupont, 1992; Rhodewalt & Morf, 1998). 자기애를 내현적인 것과 외현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백승혜와 현명호(2008)는 자기애 성향자의 분노경험수준이 자기애 성향이 낮은 집단보다 높았으며,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가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보다 적대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자기애 성향에 대해서는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표현 양상에 따라 부적응적이거나 적응적일 수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다. 자기애적 특성들에 대한 이견들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자기애 성향이 겉으로는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외현적 자기애와 자기 확신과 주도권이 부족해 보이고 내적 핵심 세계에는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비밀스런 소망을 가진 내현적 자기애로 달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백승혜, 현명호, 2008).

내현적 자기애가 외현적 자기애에 비해 부적응적이거나 병리적일 수 있다는 주장(Akhar, 1989)에 대해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우울(강선희, 정남운, 2002; 박세란, 2000; 한수정, 1999)과 내현적 자기애와의 상관을 보고하고 있다. 내현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정해 놓은 높은 기대치에 자신의 수행이나 업적이

도달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고, 이를 도저히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릴 수 없어 무시할 수 없을 때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때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우울감은 매우 극심할 수 있다고 한다(권석만, 한수정, 2000). 권희영과 홍혜영(2010)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우울, 자기비난과 수치심과 정적 상관을 지님을 보고하였다. 또한 자기애적 욕구는 사회공포증이나 자존감, 대인관계 변인들과도 연관이 있음이 보고되어 왔다(권은미, 신민섭, 김은정, 2009; 김지연, 1998; 정남운, 2001). DSM-III의 진단준거에 따르면,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들의 특성은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장된 지각, 성공과 권력이나 이상적 사랑에 대한 공상에 자주 사로잡힘,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고 과도한 찬사와 특별대우 요구, 자신의 목적을 위한 타인 착취와 타인의 감정과 입장을 공감하지 못함과 강한 질투심과 거만한 행동 등으로 설명된다. DSM-IV(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에서는 자기애란 자신만만하고 칭찬과 인정에 대한 욕구가 과도하여 대인관계 상황에서 외향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표현양상이 다른 자기애가 있을 수 있으며(Kohut, 1971). 방어의 형태에 따라 현상학적 특징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Cooper, 2000; Kernberg 1975). Kohut(1977)에 의하면, 과장된 자기와 이상화의 두 축을 따라 자기애가 발달하는데, 이 때 자기 대상의 공감 실패가 자기애적 장애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내외현적 자기애 성향자 모두 자기 가치감 조절의 기능을 내면화하지 못해 자기대상에게 과도하게 의지하게 됨으로써 타인으로부터의 긍정적

인 평가와 인정을 갈망하는 상태가 되며 이는 자기에의 핵심적인 특징의 하나인 것이다(백승혜, 현명호, 2008).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여 이 두 가지 자기에를 정의한다면, 외현적 자기에는 일반적으로 DSM에서 말하는 웅대하고 과장된 자기지각과 과시하려는 태도를 가지며 타인들에게 찬사를 요구하며 열등감, 우울, 소진감 등의 정서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며, 내현적 자기에는 타인의 평가나 반응에 대한 민감성과 쉽게 상처받는 취약성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으며, 외형적으로는 우울과 불안, 과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상반되는 특성들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성격이라는 용어로 내-외현적 자기에가 통칭되어지는 것은 핵심적인 특성이라 볼 수 있는 거대자기 환상과 특권의식, 자만심, 자기방종과 타인을 무시하는 측면들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이다(강선희, 정남운, 2002). Hendin과 Cheek(1997)은 자기에를 측정하는 NPDS를 비롯한 여러 척도들이 NPI와는 0에 가까운 상관관을 보였다고 보고함으로써 NPI가 측정하는 자기에가 내현적 자기에와는 구별되는 외현적 자기에를 측정함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하였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의 내현적 자기에 척도(CNS) 타당화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에 척도와 MMPI에서 도출된 내현적 자기에 척도는 NPI와의 상관관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에 내부에 다양한 하위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으나 자기에 척도들 간에 상관관을 측정하는 선행연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예와 같이 부적응적 자기에를 측정하는 NPDS와 NPI와의 상관관이 0에 가까운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비행청소년의 비행특성과 자기에적 성격성향의 관계를 연구한 이수정과 이혜선(2006)은 자기에적 성향의 하위요인에 따라 상관관이 있는 비행의 종류가 다르다고 하여, 모든 비행이 자기에와 상관관이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세분화하며 반박하였다. 즉 비행관련 특성에 따라 자기에의 하위요인들이 영향력을 지니는 것이 차이가 있었음을 결론지었다. 이와같이 자기에적 특성이 비행과 가지는 관계에 대한 관심들은 정신병질 성향을 개념화하는 연구들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Papps와 O'corrol(1998)은 방어적인 자존감이 높은 집단, 즉 자기에 성향과 자존감이 높은 집단이 분노감 경험과 표현이 가장 강했다고 보고하였다. Bushman과 Baumeisters(1998)는 실험실 연구를 통해 자기에 성향이 공격행동을 예언함을 보였고, Cann과 Biaggio(1989)는 자기에 성향이 강할수록 분노감을 많이 경험하고 언어적인 공격행동을 많이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이거나 적응적일 수 있다고 보고되어온 자기에 성향과 우울이나 정신병질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정신병질 성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정신병질은 19세기 초 Pinel(1809)의 개념을 Princhar(1835)가 재구성했던 '종교적, 도덕·문화적인 행동과 같이 사회적인 기대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실패한, 명백한 혼란과 뻔뻔함을 지닌 사람들'로 도덕적 정신이상이라 명명되어 왔다(이수정, 박혜영, 2009). 이후 Cleckly(1976)가 '외관적으로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고 보통수준이상의 지능을 가지지만 극히 이기적이고 타인을 자신의 목적달성에 이용하고 무책임하고 냉담하고 거짓말을 잘 하는 특성을 지니는 이'라고 학계에 소개한 후 '반사회적 성격장애'라는 개념으로 소개되어오다가 PCL

(Psychopathy Checklist)이라는 측정도구의 개발로 가능해진 많은 실증적 연구들을 통해 개념이 정립되어졌다.

지금까지 정신병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어온 도구는 정신병질적 성격 질문지 개정판(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Revised; PPI-R)과 PCL-R(th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이다. PPI-R은 Lilienfeld와 Andrews(1996)에 의해서 개발된 자기보고식 검사인 PPI(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의 개정판으로 정신병질의 특성들을 측정하기 위해 Lilienfeld(2005)에 의해 고안되었다. 2개의 타당도 척도와 8개의 내용 척도로 구성된 PPI-R은 임상 장면과 일반인, 그리고 범죄자 모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되었고(Lilienfeld & Widows, 2005). 국내에서는 이수정, 박혜영, 공정식(2007)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것이 사용되고 있다. PCL-R은 Hare(1991)가 개발한 평가자가 채점하는 평가 도구로 Cleckley(1976)가 언급한 핵심적인 정신병질적 특성에 관한 내용의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PCL-R은 지침서에 따라 자격을 갖춘 평가자가 대상자의 기관 파일을 검토하고 대상자와의 면담을 실시한 후 채점하도록 되어 있다. PCL(Psychopathy Checklist)의 개발은 정신병질에 대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을 가능하였고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현재 사용되는 정신병질의 개념이 형성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Levenson, Kiehl과 Fitzpatrick(1995)이 487명의 대학생들을 비수감자 집단으로 선정하여 정신병질적 특성을 평가하는 연구과정에서 개발된 도구인 정신병질 자기보고 검사(Self-Report Psychopathy: SRPS)를 사용하였다. SRPS는 문헌에 기술되어 있는 정신병질적 특성과 관련되어 구성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Hare Psychopathy checklist(Harpur, Hare, &

Hakisian, 1989)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필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신병질 성향 측정에 활용가능한 PPI-R과 SRPS를 실시하고 성차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김범준 등(2009)의 연구에서는 PPI-R을 이용하여 측정한 여학생들의 정신병질 성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연구대상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남성들의 정신병질 점수가 높다는 연구결과들(Lilienfeld & Widows, 2005; Mahmut, Homewood, & Stevenson, 2007)과는 불일치하는 것이었으나 정신병질 성격평가 검사 개정판(PPI-R)의 국내 표준화를 위한 연구(이수정, 박혜영, 2009)의 결과와는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차에 관한 불일치된 결과들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신병질의 구성개념을 적용한 연구들이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 최근의 10년 간에 일어난 일이며(Rostard & Rogers, 2008). 기존의 정신병질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주로 남성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에서도 일부 원인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정신병질 검사나 개념을 여성 수감자들에게 적용할 때, 평가과정이나 정신병질의 구성개념을 수정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Nicholls & Pettila, 2005). 이수정과 박혜영(2009)은 문화교차적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864명의 남녀 대학생에게 자기보고형 정신병질 검사(SRPS)를 실시하여 비교하였던 김범준, 이은진, 김영윤(2010)의 연구에서는 PPI-R이나 PCL-R을 사용한 연구와 달리 평균에서 남녀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정신병질 특성이 사회적으로 성에 따라 달리 받아들여진다는 Forouzan과 Cooke(2005)의 연구를 통해서 뿐 아니라 많은 심리적인 변인들이 갖는

특성이 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짐을 우리 일상에서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형 정신병질 검사와 PPI-R 을 함께 사용하여 이러한 성차에 대한 다양한 결과들이 각 정신병질 검사가 측정하는 구인의 차이인지 대상에 따른 차이인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애와 정신병질 특성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자료를 얻고 이를 해석하고자 자기애 성향과 우울, 정신병질 성향에 대한 비교분석을 대학생 집단 내에서 남녀별로, 부적응적 자기애 수준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애 성향, 우울과 정신병질 성향이 남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자기애 성향과 정신병질은 선행연구와 같이 남녀 간에 차이가 유의하지 않을 것이고 우울은 여성들이 높을 것이다. 둘째, 자기애 성향, 우울과 정신병질 성향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부적응적 자기애 성향과 우울과 정신병질 성향 간에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며, 외현적 자기애 척도와는 우울이나 정신병질 성향이 부적 상관을 보일 수도 있다. 셋째, 부적응적 자기애 수준에 따라 우울과 정신병질 성향이 다를 것이다. 부적응적 자기애 수준이 높은 사람은 우울과 정신병질 척도 점수가 높을 것이다.

방 법

조사대상자 및 절차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교 105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중에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심리학 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소요시간은 30분 내외였다. 수거된 설문지 중에서 설문에 성의 있게 응답하지 않거나 설문에 끝까지 응답하지 않은 47명을 제외한 총 1003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자료 분석대상의 남학생 비율이 전체의 49.9 %(501명), 여학생이 50.1%(502명)이며, 평균 연령이 남학생은 21.37세, 여학생은 20.35세였다.

도 구

자기애 성향

자기애성격장애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NPDS). 부적응적인 자기애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황순택(1995)이 DSM-III-R의 진단 준거를 보완하여 성격장애를 측정하는 자기보고형 검사로 개발한 자기애적 성격장애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적응상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자기애 성격을 측정한다는 연구결과(한수정, 1999)를 고려할 때 부적응적 자기애를 측정하는 도구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 수는 18문항이며 4점 척도로 평가하게 되어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백승혜, 현명호, 2008)를 참고하여 보다 정교한 평가를 위해 한수정이 수정한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황순택(1995)이 보고한 내적 합치도는 .68이었으며, 한수정(1999)의 7점 척도 방식에서는 .99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76 이었다.

자기애 성격검사지(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 대학생의 자기애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한수정(1999)이 번안하여 수정 및 보완한 Raskin과 Hall(1978)의 자기애 성격검사

지(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를 사용하였다. NPI는 DSM-III(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의 자기애적 성격장애 진단기준에 근거하여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기애 측정도구이다. 원래 제작목적이 비임상적 집단의 정상적인 개인차로서의 자기애를 평가하는 것이었고(정남운, 2001; Raskin & Terry, 1988), 타당화 작업도 일반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다(Emmons, 1984; Raskin & Hall, 1979). 정남운(2001)은 120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요인구조를 알아본 연구에서 NPI의 문항들이 '자기애'라는 일반적 구성개념의 심리적, 행동적 현상들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NPDS가 나타내는 부적응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의 상관과 차이를 살펴보고자, 외현적 자기애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NPI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는 40문항의 단축형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들은 자기애를 나타내는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으로 구성된 두 문장이 제시되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문항은 'A.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를 갖는 것을 좋아 한다'와 'B.나는 별로 개의치 않고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른다' 나 'A.나는 다른 사람 속에 섞여 있는 것을 좋아한다' 와 'B.나는 여러 사람에게서 주목받는 것을 좋아한다' 와 같은 형식의 쌍으로 제시된다. 점수의 범위는 0-40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애 성향이 높은 것을 나타내도록 되어있다. 한수정(1999)은 반분신뢰도를 .85로 보고하였으며, Raskin과 Hall(1981)은 8주간의 동형 검사 신뢰도를 .72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9로 나타났다.

우울(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BDI는 Beck(1967)에 의해 만들어진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개의 서술문으로 되어있고 그 중 자신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BDI는 우울의 인지적 증상, 정서적 증상, 자존심 저하 및 신체적 증상들을 포괄적으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중용(1991)에 의해 번안된 한국판 Beck의 우울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들이 보고한 BDI의 Cronbach's α 는 .98이며 반분신뢰도는 .91이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92이다.

정신병질

정신병질 자기보고 검사(Self-Report Psychopathy Scale: SRPS).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정신병질 정도를 측정하고자 사용한 도구는 Levenson, Kiehl과 Fitzpatrick(1995)이 비수감자 집단을 대상으로 정신병질적 특성을 평가하는 연구과정에서 일차적 정신병질과 이차적 정신병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인 정신병질 자기보고 검사(Self-Report Psychopathy Scale: SRPS)이다. 26개 문항의 자기보고식 검사이며, 모든 문항들은 Likert식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각 진술문에 대해 '정말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답하도록 되어있다. 문항들은 문헌에 기술되어있는 정신병질적 특성들과 관련하여 구성되었으며(Cleckley, 1976, Hare, 1991), 특히 Hare Psychopathy Checklist(Harpur, Hare, & Hakisian, 1989)에서 도출된 2요인과 유사한 내용이다. 일차적 정신병질의 문항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기적이고 무관심하며 조작적인 태도를 측정하고자 고안되었고, 이차적 정신병질의 문항은 충동적이고 자기-패배

적인 생활방식을 평가하기 위한 내용으로 되어있다. Levenson, Kiehl과 Fitzpatrick(1995)의 연구에서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8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3으로 나타났다.

정신병질 척도(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Revised; PPI-R). 본 연구에서 정신병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는 정신병질적 성격 질문지 개정판이다. PPI-R은 정신병질의 특성들을 측정하기 위해 Lilienfeld와 Andrews(1996)에 의해서 개발된 PPI(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의 개정판으로 Lilienfeld(2005)에 의해 고안되었다. 이 검사는 임상 장면과 일반인, 그리고 범죄자 모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되었다(Lilienfeld & Widows, 2005). 본 연구에서 사용된 PPI-R은 국내에서 이수정, 박혜영, 공정식(2007)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점수는 피검사자가 속한 집단의 특성인 성별, 연령이나 범죄력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기 때문에 원점수만으로 평가할 경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규준집단별 점수와 비교하기 용이한 형태로 변환시킨 T점수를 산출하여 평가한다.

PPI-R은 2개의 타당도 척도와 8개의 내용척도로 구성되어있다. 타당도척도는 도덕적 반응(VR)과 비정상적인 반응(DR)이 있다. 내용척도는 권모술수적 이기주의(ME), 반항적인 비협조(RN), 비난의 외재화(BE), 무책임한 비계획성(CN), 사회적 영향력(SOI), 대담성(F), 스트레스 면역(STI), 냉담함(C)이 포함된다. PPI-R은 총 154문항으로 이루어져있고 응답은 4점 척도로 되어 있다. 본 연구 자료의 내적합치도는 .85이었다.

분석 방법

자료의 전반적인 기술통계량은 SPSS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연구문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먼저 자기에 성향과 우울, 정신병질 성향의 남녀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 비교와 t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척도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남녀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부적응적 자기에 수준에 따른 외향적 자기에, 우울, 정신병질 척도들의 점수 간에 차이를 확인하고자, NPDS 점수의 상위33%와 하위33%에 해당하는 그룹으로 구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성 변인에 따른 자기에, 우울, 불안과 정신병질의 차이

자기에 성향과 우울, 불안과 정신병질 척도 총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남녀에 따른 비교분석 결과, 외향적 자기에 성향, 자기에적 성격장애, 우울, 정신병질 척도 중 PPI-R 점수는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우울($t=4.98, p<.001$), 불안($t=5.92, p<.001$)과 정신병질 성향($t=9.03, p<.001$)은 여학생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부적응적 자기에 성향은 남학생 집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31, p<.05$). 자기에적 성격장애 척도(NPDS) 점수와 정신병질 경향에서 SRPS의 총점은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 성별 자기애 성향, 공격성과 정신병질의 평균 (표준편차)

변인		남학생(N=501)	여학생(N=502)	전체(N=1003)	성별(t)
자기애성향	NPDS	65.08 (15.76)	63.78 (15.23)	64.43(15.51)	1.33
	NPI	17.12 (7.47)	16.04 (7.29)	16.58(7.40)	2.31*
우울	BDI	8.30 (6.32)	10.13 (6.05)	9.22(6.26)	-4.69***
	PPIR	51.74 (7.53)	56.20 (8.04)	53.97(8.10)	-9.03***
정신병질	SRPS	56.06 (7.49)	55.47 (7.19)	55.77(7.34)	1.27

* $p < .05$, ** $p < .01$

자기애, 우울, 정신병질 간의 관계

정신병질과 각 변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인별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전체와 성별에 따라 제시하였다(표 2, 표 3).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각 변수들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우울과 외현적 자기애 점수만이 부적 상관을 보였다($r = -.157, p < .01$). 정신병질 검사(PPI-R)점수와 외현적 자기애 점수간

의 상관이 가장 높았다($r = .471, p < .01$).

이러한 결과는 남녀별로 다시 분석해서 집단별로 달리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학생들 집단에서 외현적 자기애 성향은 정신병질 자기보고 점수와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고($r = .039, ns$), 우울과 정신병질 점수와의 상관도 유의하지 않았다($r = .062, ns$). 남녀 모두 외향적 자기애 점수와 정신병질 성향 점수와의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r = .493$).

표 2. 자기애(NPDS, NPI), 우울(BDI), 정신병질(SRPS, PPI-R) 점수들 간의 상관(N=1003)

	NPDS	NPI	BDI	SRPS
NPDS				
NPI	.363**			
BDI	.212**	-.157**		
SRPS	.367**	.110**	.353**	
PPI-R	.343**	.471**	.114	.443**

NPDS : 자기애 성격장애 검사
 NPI : 자기애 성격검사
 BDI : 우울 검사
 SRPS : 정신병질 자기보고 검사
 PPI-R: 정신병질적 성격 질문지 개정판 (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Revised).

* $p < .05$, ** $p < .01$

표 3. 남학생의 자기애(NPDS, NPI), 우울(BDI), 정신병질(SRPS, PPI-R) 점수들 간의 상관(N=501)

	NPDS	NPI	BDI	SRPS
NPDS				
NPI	.334**			
BDI	.231**	-.194**		
SRPS	.391**	.039	.297**	
PPI-R	.393**	.493**	.062	.450**

NPDS : 자기애 성격장애 검사
 NPI : 자기애 성격검사
 BDI : 우울 검사
 SRPS : 정신병질 자기보고 검사
 PPI-R: 정신병질적 성격 질문지 개정판 (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Revised).

* $p < .05$, ** $p < .01$

$p < .01$; $r = .531$, $p < .01$). 이러한 결과는 남녀 모두에서 우울과 외향적 자기애가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었고 외향적 자기애와 정신병질 자기보고 점수와의 정적인 상관은 여학생들 집단에서만 유의하였음을 나타낸다.

부적응적 자기애 상하위 집단별 외향적 자기애, 우울, 정신병질 성향의 차이

부적응적 자기애(NPDS) 수준에 따라 외향적 자기애, 우울, 정신병질 성향이 달리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NPDS 척도 점수의 상위 33%와 하위 33%를 이용하여 상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평균 점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적응적 자기애 상위집단에서 모든 척도들이 하위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10.04$, $p < .001$; $t = 6.13$, $p < .001$; $t = 11.29$, $p < .001$; $t = 9.56$, $p < .001$). 이러한 결과는 남녀를 구분하여 비교해 보았을 때도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4. 여학생의 자기애(NPDS, NPI), 우울(BDI), 정신병질(SRPS, PPI-R) 점수들 간의 상관(N=502)

	NPDS	NPI	BDI	SRPS
NPDS				
NPI	.391**			
BDI	.210**	-.100*		
SRPS	.340**	.180**	.436*	
PPI-R	.347**	.531**	.092*	.495**

NPDS : 자기애 성격장애 검사

NPI : 자기애 성격검사

BDI : 우울 검사

SRPS : 정신병질 자기보고 검사

PPI-R : 정신병질적 성격 질문지 개정판(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Revised).

* $p < .05$, ** $p < .01$

논 의

본 연구는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애 성향과 우울, 정신병질 성향 척도들을 실시하여 자기애 수준이나 성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표 5. 부적응적 자기애 상하위 집단별 외향적 자기애, 우울, 정신병질 성향의 차이

	NPDS (명)	평균 (표준편차)	t
외향적 자기애 (NPI)	저(336)	14.26(7.23)	-10.04***
	고(344)	19.76(7.03)	
우울 (BDI)	저(336)	7.66(5.78)	-6.13***
	고(344)	10.55(6.51)	
정신병질자기보고 (SRPS)	저(336)	52.66(6.64)	-11.29***
	고(344)	54.17(9.36)	
정신병질적 성격 (PPI-R)	저(332)	51.14(7.48)	-9.56**
	고(344)	56.98(8.34)	

같다.

첫째, 자기애 성향과, 우울과 정신병질 특성을 남녀별로,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현적 자기애 성향과 우울, 그리고 정신병질 척도 중 PPI-R 점수가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우울과 정신병질 성향은 여학생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외현적 자기애 성향은 남학생 집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애적 성격장애 척도(NPDS) 점수와 정신병질 경향에서 SRPS의 총점은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들 간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달리 나타난 결과를 얻었다. 즉 자기애에 있어서 부적응적 자기애 수준은 남녀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외현적 자기애는 남자 집단이 유의하게 높았고, 두 가지 정신병질 척도들에서는 정신병질 자기보고 검사에서는 남녀 간에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남성 집단의 평균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자기애와 우울, 정신병질 변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변인별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전체와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각 변수들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우울과 외현적 자기애 점수만이 부적 상관을 보였다. 정신병질 검사(PPI-R)점수와 외현적 자기애 점수간의 상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별로 다시 분석해 보면, 남학생들 집단에서 외현적 자기애 성향은 정신병질 자기보고 점수와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고 우울과 정신병질 점수와의 상관도 유의하지 않았다. 남녀 모두 외향적 자기애(NPI) 점수와 정신병질 성향(PPI-R) 점수와의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녀 모두에서 우울과 외향적 자기애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외향적 자기애와 정신병질 자기보고

(SRPS) 점수와의 정적인 상관은 여학생들 집단에서만 유의하였음을 나타낸다.

셋째, 부적응적 자기애(NPDS) 수준에 따라 외향적 자기애, 우울, 정신병질 성향이 달리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NPDS 척도 점수의 상위 33%와 하위 33%를 이용하여 상·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평균 점수를 비교한 결과, 부적응적 자기애 상위집단에서 모든 척도들이 하위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를 구분하여 비교해 보았을 때도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적응적 자기애가 높은 집단은 외향적 자기애 성향 뿐 아니라, 우울, 정신병질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들 중에서 주요한 내용을 논의 하려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기애, 우울과 정신병질 척도 점수들이 나타내는 성차에 대해서는 변인에 따라 선행연구들에서도 일치된 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있다. 자기애 변인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외현적 자기애 척도(NPI)에서만 남성들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NPI가 리더십/자신감, 권력욕구/특권의식, 과시/칭찬 욕구, 우월의식으로 명명되는 4요인이 추출된 외현적 자기애를 측정한다는 면에서 볼 때(정남운, 2001), 남성들의 자기애 성향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 사회가 가정하는 남성성 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이은진, 김영운, 김범준, 2010).

대학생들의 정신병질에 대한 반사회성과 정서적 공감의 영향에 대한 성차를 연구한 김범준, 이은진과 김영운(2009)의 연구에서 PPI-R을 사용하여 정신병질 점수를 측정하였고 여성의 정신병질 척도 점수가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PPI-R

점수가 여자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낮은 범 죄율을 보이며, 수감된 이들도 남성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들을 고려하면 선뜻 이해되지 않는 듯 보인다. 정신병질에 관련된 연구에서 남녀 차이가 나타나게 하는 주된 요인들에 대해 대인관계나 행동적인 측면에서 설명한 Forouzan과 Cooke(2005)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성차를 해석하는데 있어 남녀를 달리 보이게 하는 사회적으로나 맥락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인관계 측면에서 남을 기만하는 남성은 더 교활하며, 반면 여성들은 진지하지 않거나 경박해 보인다. 행동적인 면에서 남성 정신병질자들은 충동성을 자주 보이고 폭력행동 같은 품행문제를 일으키며 여성들은 가출, 자해, 타인을 이용한 착취, 그리고 절도나 사기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 둘째, 대인관계 측면에서 보일 수 있는 정신병질의 특성은 여성들에 있어서는 약화되어 나타나는데, 아주 극단적인 징후를 가지지 않는 한 정신병질적인 여성들이 언제나 가벼워 보이거나 피상적으로 매력적이거나 과장되어 보이는 것은 아니다. 셋째, 남녀 정신병질자들은 성적 행위 동기에서 구분되는 점을 보이는데 여성들은 상대를 이용하고자 문란한 성행동을 보이는 반면, 남성들은 자신들의 욕구충족과 자극 추구를 위해 동기화 된다는 것이다. 넷째, 이러한 정신병질적 특성들은 우리 사회의 규범이나 준거가 남녀에 따라 달리 적용됨으로 인해 그 해석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금전적 의존이 여성인 경우는 사회적으로 일부 수용되어지기도 하나 남성의 경우에는 기생적인 것으로 보이게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요인들이 정신병질과 관련됨을

볼 때, 남녀의 성차를 해석하거나 분석할 때 사회적인 규범이나 성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가 요구될 것이다.

둘째, 각 변인들과의 상관 분석에서 남학생들은 외현적 자기애가 높은 것이 정신병질 자기보고 점수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여성보다는 남성들에게 있어 외현적 자기애가 수용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우울 또한 정신병질 점수와 유의한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것은 남성들에게 있어 우울이 여성의 경우보다는 정신병질적 특성을 설명하는데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하는 결과이다. 정신병질을 설명하는데 있어 남녀가 동일한 기제를 지니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추하게 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에 성향과 정신병질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분석한 연구(이은진 등, 2010)에서, 외현적 자기애의 하위척도인 과시욕과 특권의식이 정신병질에 미치는 영향을 공격성이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설명력은 여학생들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존감과 자기에 성향이 함께 높은 집단이 분노감을 덜 억제하고 자기주장적인 언어적 공격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서수균과 권석만(2002)의 연구결과와도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자기애의 부적응적 특징들이 정신병질로 발현되는 기제에는 분노감이나 언어적인 공격성을 포함하는 공격성이 매개역할을 할 수 있음을 생각할 때, 남녀가 우울이나 외현적 자기애 변인에 대해서는 다른 영향력을 지닐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부적응적 자기애 수준에 따라 외향적 자기애, 우울이나 정신병질 성향이 달리 나타

났다. 즉 부적응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은 우울과 정신병질 성향이 두드러졌고,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생들에서는 외향적 자기애도 높게 나타났다. 자기애적 성격장애 척도(NPDS)가 적응상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성격을 측정한다는 연구결과(한수정, 1999)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측정된 부적응적 자기애는 우울과 정신병질의 성향과 함께 나타남으로써 적응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자애적 성격검사지(NPI)가 외현적이고 부적응적인 자기애보다 비교적 건강한 자기애를 측정한다는 해석이 많았으나(Hickman, & Check, 1996; Raskin, Novacek, & Hogan, 1981),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자기애가 높은 집단에서 외현적 자기애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상하위 33%로 집단을 구분하여 비교한 것이므로 상위에 해당하는 집단을 부적응적으로 단정하기보다는 대학생 집단에서의 상위 점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현적 자기애 측정도구로 알려진 NPI와 자기애 성격장애 척도인 NPDS와의 상관성이 외국의 선행연구(Mullins & Kopelman, 1988)와는 달리 .363의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서구의 외향적인 사회분위기와는 다르게 자신을 드러내거나 과시하려는 듯 보이는 태도가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부적응적일 수 있으므로 외현적 자기애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들은 부적응적 자기애 척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서구에서 수용적인 외현적 자기애의 특성들이 우리사회에서는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므로 인해 달리 인식될 수도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

구의 대상은 경기지역의 대학교 학생들이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로 일반화하는데 조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적응적 자기애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외현적 자기애 점수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나 남자집단에서 우울이나 외현적 자기애가 정신병질 척도와 상관이 낮게 나타난 것 등은 청년기 초기의 대학생들에게서 보여지는 특성일 수도 있으므로 추후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하는 연구를 통해 검증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를 측정하는 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의해 외현적 자기애 척도로 분류되어온 NPI와 부적응적 자기애를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NPDS를 사용하였으나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를 구분하여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부적응적 자기애가 높을 때, 외현적 자기애도 높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를 구분한 연구를 시도한다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가 외현적 자기애 척도와 부적응적 자기애 측정 도구 간의 상관에 관심을 둔 것이라 외현적 자기애의 하위 요인별로 나누어 살펴보지 않았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하위 요인별로도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비교하며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신병질에 관한 척도인 PPI-R는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SRPS는 타당도 연구만 진행된 상태이므로 척도 사용에 있어 결과해석에 주의를 요하는 면이 있다. 추후에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정신병질 측정과 평가도구 이외에 SRPS를 활용한 연구 자료들이 축적되어짐에 따라 정신병질의 특성이 갖는 다양한 측면들이 밝혀져 나가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4), 969-990.
- 경찰청 (2010). 경찰백서.
- 권은미, 신민섭, 김은정 (2009). 내현적 자기에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627-642.
- 권희영, 홍혜영 (2010).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에 우울의 관계: 자기비난과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22(4), 1023-1048.
- 김주현, 오경자 (2008). 자기에의 세부특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4), 911-924.
- 김민주 (2007). 중학생의 성별과 공격성 유형에 따른 자기에 및 지배성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범준, 이은진, 김영운 (2009). 대학생들의 정신병질에 대한 반사회성과 정서적 공감의 영향: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2), 219-239.
- 김재경 (2006).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SRPS)의 타당도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연 (1998). 자기애적 성격특성과 대인관계 유형 및 대인관계 적절성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세란 (2000). 외현적 내현적 자기에의 자기평가와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백승혜, 현명호 (2008). 내현적,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적대감, 분노경험 수준 및 분노 표현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4), 1001-1017.
- 서수균, 권석만 (2002). 자존감 및 자기에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809-426
- 윤성민, 신희천 (2007). 내현적 자기에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967-982.
- 이수정, 박혜경 (2009). 한국판 정신병질 성격평가 검사: 전문가 지침서.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 이수정, 박혜영, 공정식 (2007). KCPI와 PPI-R을 통한 수용자들의 출소 후 재범여부의 예측. 한국경찰학회보, 14, 161-187.
- 이수정, 이혜선 (2006). 비행청소년의 비행특성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2), 1-18.
- 이영호, 송중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99-113.
- 이은진, 김영운, 김범준 (2010). 대학생의 자기에 성향이 정신병질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3), 447-468.
- 장유진 (2007). 중학생의 성별과 공격성 유형에 따른 자기에 및 지배성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남운 (2001). 자기애적 성격검사의 요인구조와 아이젠크 성격차원 및 자존감과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221-237.
-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수정, 권석만 (2010). 자기애자의 자기관련 정보에 대한 지각적 민감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4), 1135-1143.
- 황순택 (1995). 전형성 평정에 의한 성격장애 진단 준거 개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Akhar, S., & Thom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12-2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Beck, A. T. (1967). *Depression: deni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 Row.
- Bushman, B. J., & Baumeister, R. F. (1998). Threatened ego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219-229.
- Cann, J., & Biaggio, M. K. (1989). Narcissistic personality features and self-reported anger. *Psychological Reports*, 64, 55-58.
- Cleckley, H. (1976). *The Mask of Sanity* (5th Ed.). St. Louis, MO: Mosby.
- Cooper, A. (2000). Further development in the clinical diagnosi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F. Elsa, & E. Ronnisntam (Eds.), *Disorders of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London: Jason Aronson Inc.
- Emmons, R. A. (1984). Factor analysis and construct validity of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 291-300.
- Forouzan, E., & Cooke, D. J. (2005). Figuring out la femme fatale: Conceptual and assessment issues concerning psychopathy in females.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23, 765-778.
- Hare, R. D. (1986).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 Toronto Multi-Health Systems.
- Hare, R. D. (1991).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Toronto Multi-Health Systems.
- Harpur, T. J., Hare, R. D., & Hakstian, A. R. (1989). Two-factor conceptualization of psychopathy: construct validity and assessment implications. *Psychological 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 6-17.
- Hart, P. H., & Joubert, C. E. (1996). Narcissism and hostility. *Psychological Reports*, 79, 161-162.
- Hendin, H. M.,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ity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588-599.
- Hickman, H. M., & Cheek, J. M. (1996). Assessing hypersensitive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4), 521-525.
-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Jason Aronson.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Levenson, R. M., Kiehl, A. K., & Fitzpatrick, M. C. (1995). Assessing Psychopathic Attributes in a Noninstitutionalized Pop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1), 151-158.
- Lilienfeld, S. O. (2005). *Psychopathic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Florida, U.S.A.*

- Lilienfeld, S. O., & Andrews, B. P. (1996). Develop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of Psychopathic Personality Traits in Noncriminal Populations, *Th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1996; 66(3), 488-524.
- Lilienfeld, S. O. & Widows, M. R. (2005). 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Revised Professional Manua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Florida, U.S.A.*
- Mahmut, M. K., Homewood, J., & Stevenson, R.J. (2007). The characteristics of non-criminals with high psychopathy traits: Are they similar to criminal psychopath?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3), 479-692.
- Mullins, L. S., & Kopelman, R. E. (1988). Toward an assessment of the construct validity of four measur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 610-625.
- Nicholls, T. L. & Petrila, J. (2005). Gender and Psychopathy: An Overview of important issues and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23, 729-741.
- Papps, B. P., & O'carrol, R. E. (1998). Extremes of self-esteem and narcissism and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and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24, 421-438.
- Raskin, R., & Hall, C. S.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lternative form reliability and further evidence for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5, 159-162.
- Raskin, R., & Terry, H. (1988). 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890-902
- Rhodewalt, F., & Morf, C. C. (1995). Self interpersonal correlate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 review and new finding.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9, 1-23.
- Robins, S. B. & Dupont, P. (1992). Narcissistic needs of the self and perceptions of interpersonal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462-467.
- Rostard, J. E. & Rogers, R. (2008). Gender differences in contributions of emotion to psychopathy and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 1472-1484.

1 차원고접수 : 2011. 2. 8.
심사통과접수 : 2011. 3. 2.
최종원고접수 : 2011. 3. 18.

The relation among narcissistic personality, depression, and psychopathy: Focus on gender differences

Young Youn Kim

Eunjin Lee

Beom Jun Kim

Criminal Psychology, Kyonggi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relations among college students' narcissistic personality, depression, and psychopathy. This study investigated how narcissistic personality and depression variables relate to psychopathy variables. For this purpose, an assessment battery consisting of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NPI),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NPDS), BDI, Self-Reported Psychopathy Scale(SRPS), and 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Revised. PPI-R was administered to 1003 college students (501 males and 502 females). For comparison with the levels of pathological narcissism,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above 33%, below 33%) based on their scores of the NPDS. According to the results, males had more overt narcissistic personality, and females felt more depressive and psychopathic. The higher level group on the NPDS had higher scores on the NPI, BDI, SRPS and PPI-R. The students' narcissistic personality had relations to depression and psychopathy, but the result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kind of inventories(PPI-R or SRPS, NPI or NPD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s well as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suggested.

Key words : pathological narcissistic personality, overt narcissistic personality, depression, psychopathy, gender differences.